

결혼

Ehe

1. 어원 및 개념 정의

결혼 Ehe은 영원함과 법, 권리를 의미하는 고지독일어 awe에서 유래한다. 결혼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관습, 법, 혹은 규약으로 맺어진 삶의 공동체를 지칭하며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을 부부라고 부른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은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지니며 부부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새로운,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한다. 결혼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다. 생식, 성적인 충동과 조절, 자식 양육, 경제적 생산과 소비 그리고 애정, 지위, 동료에 같은 개인적인 욕구충족이 그 예이다.



결혼은 서로 다른 성이나 혹은 같은 성의 사람들끼리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삶의 공동체이다. 서로 다른 성끼리의 결합이 부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전제는 이제 더 이상 모든 나라에 유효하지 않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칸디나비아와 네덜란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들과 결혼한 부부를

법적으로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독일법에서도 “서로 다른 성을 가진 혹은 같은 성을 가진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혼은 국가적 기구를 통한 결혼성명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독일이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이를 공무원이 대신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종교단체가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결혼은 이혼이나 결혼의 무효화 선언, 혹은 파트너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각 나라마다 이혼을 위한 각기 상이한 유예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며 그 유예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하다.

결혼은 다른 공동체들과는 달리 법으로 인정되고 규정화되어 있다. 결혼은 당사자들 사이의 경제적인 권리나 의무를 명시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발전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 결혼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종교나, 신분, 재산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도 한다. 결혼은 상속을 확실하게 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현대에 와서는 결혼에 대해 상대방을 물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다.

2. 모티프 발달사

결혼과 간통, 이혼은 문학에서 즐겨 다루어진 모티프이다. 호머의 작품에서 현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고전문학에서 대중문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에는 결혼이 등장한다. 여러 시대의 문학작품들에서 표현된 결혼관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른 결혼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낭만적인 사랑의 이상을 실현하는 시민사회에서는 결혼 이데올로기로 결혼 신화를 형성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으로 이해되면서, 시민사회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되었다. 성의 차별에 바탕을 둔 18세기 대중철학, 대중문학은 남성과 여성의 천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했으며 남녀의 역할과 그와 관련된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은 흑백논리(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를 고착시켰다.

자연법과 자연과학으로 남성적 본질과 여성적 본질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리성, 적극성, 직업, 사회, 교양은 남성적 본질이며, 보호 본능, 감성, 부드러움, 종교성, 자기부정, 자기희생 등은 여성적 본질로 간주되었다. 남성들은 가족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여성들에게는 가족적이고 가정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이 부가되었다. 남성들의 간통조차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쉴러, 훔볼트, 쉐레겔 등은 시민적이고 낭만적인 결혼을 모든 사회계층의 공식적인 모범으로 승화시켰다. 시민적이고 사적이며, 낭만적인 사랑의 결혼이 시대의 규범이 되었다. 제도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강조하면서 낭만적이며 파트너간의 섹스를 충족시키는 사랑의 결혼을 이상화시켰다.

그러나 시민적이고 센터멘탈하거나 낭만적인 이상에 부응하는 결혼은 괴테시대나 그 이후에도 실현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었다. 돈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으며, 신분이나 재산, 종교나 종족 또한 결혼을 제한하는 요소로 기능했다. 시민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결혼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확산된 때에도 신분을 뛰어 넘는 결혼은 아주 드물었다. 결혼의 전제조건인 물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는 자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형식을 갖춘 결혼을 포기해야 했다.

칸트는 결혼을 성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약관계로 보았다. 남편은 아내 외의 사람과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되고 아내도 남편 외의 사람과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면서 결혼은 명료하고 공평한 계약관계로 간주한다.

이러한 결혼관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를 보여준다. 노르다우는 그의 저서 『문화인간의 관습적 거짓』이라는 저서에서 사랑의 본질을 친화력이라고 표현한 괴테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결혼을 거짓된 시민적 제도라고 고발하며 결혼이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세기말 문학에서 결혼은 문제 해결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 세기말의 결혼 담론은 현대적인 결혼관을 제시한다. 결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문학적 예들을 당시의 문학작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슈니츨러는 ‘시민적인’ vs. ‘현대적인’의 공식에 따른 결혼의 이분법적 모델을 『윤무』에서 보여준다. 남녀 사이의 여러 상이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는 장면의 연속인 이 작품에서 슈니츨러는 ‘시민적인 것’에서 ‘현대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며 사랑과 결혼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자연주의자들은 결혼을 가난과 실업, 알코올 중독, 유전병, 영아살해 등의 모티프와 연결시킨다. 세기말 비인을 중심으로 한 현대 문학에서는 열정이나 욕망, 혼외정사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데 반해 자연주의적 작품에서는 사회적이고 환경에 근거한 불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다.

3. 모티프 유형

1)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

괴테는 『친화력』에서 시민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관을 보여준다. 연인관계인 에두아르트와 샬롯테는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 우연히 둘 다 독신이 되자 그들은 새로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 결혼 후 이전의 열정이 식었음을 발견하고 심각한 공허감에 빠진다. 이들은 각자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혼하려 하나 예기치 않은 불행이 뒤따른다. 괴테는 결혼생활이 아무리 공허하고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합된 부부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혼관을 피력한다.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부부관계를 경시할 때에는 부부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역설한다.

2) 신분상승을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서의 결혼

테오도르 폰타네의 소설 『에피 브리스트』에서 딸의 신분상승을 바라는 부모의 권유로 어린 소녀 에피는 인스텐텐 남작과 결혼한다. 부모의 강요에 의한 에피의 정략적 결혼은 불행한 결혼생활로 끝난다. 에피의 오래된 불륜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남작은 에피의 정부를 사살한 뒤 에피를 집에서 내쫓는다. 이 작품에서 폰타네는 신성한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여인의 비극적 결말을 제시한다.

3) 강제결혼

인간생활의 기본적이고 법적인 규범인 결혼이 처벌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기존 세계의 규범인 결혼을 뒤엎는 발상으로 뉘렌마트는 『미시시피씨의 결혼』에서 강제결혼을 통해 일반적이고 익숙한 결혼관을 왜곡한다. 자신을 독살한 아내를 처벌하는 형벌로 미시시피는 강제결혼을 선고함으로써 아내를 징벌한다.

4)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결혼

계약결혼은 결혼의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계약은 결혼의 유지조건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파스빈더의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결혼생활

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마리아는 헤르만과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헤르만은 곧 전장으로 끌려간다. 마리아는 사업가 오스왈드의 정부로 그의 사업에 동참하여 사업적 성공을 거둔다. 오스왈드는 헤르만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제시하며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마리아와의 관계를 허락해줄 것을 요구한다. 헤르만은 오스왈드의 계약조건에 동의한다.

5) 경제적 이득과 안정을 얻기 위한 결혼

경제적 이득과 안정을 얻기 위해 현실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결혼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혼은 대부분 자살이나 정신분열, 살인 등의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 하우스프트만은 <운송업자 헨셀>에서 각각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목적으로 결혼한 어떤 부부의 과정을 보여준다. 아내가 병사한 후 운송업자 헨셀은 하녀와 재혼한다. 결혼을 통해 현실적인 안정을 찾은 하녀는 전처의 아들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철로지기 킬>에서도 <운송업자 헨셀>에서 사용된 결혼 모티프가 반복된다. 철로지기 킬은 아내가 병으로 죽고 어린 아들 토비아스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아들을 돌보아 줄 여자가 필요해 하녀 레네와 결혼한다. 레네는 토비아스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횡포를 일삼지만 킬은 그녀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사랑
	성적 만족
	신분상승
	정략적 이해
	경제적 이유
	계약
	가족의 부양
	복수
과정	불화, 별거
	간통, 불륜
	폭력
	성적인 불만
	자식 양육
	원만한 가정생활
결과	불행한 결혼 (이혼, 파혼)

	다시 독신이 됨 (이혼, 파혼, 배우자의 죽음, 계약 만료)
	절망, 죽음, 병, 자살
	결혼의 목표(신분상승, 정략적 이해관계)를 달성함
	파혼 후 갈등 · 복수관계로 변질
	행복, 원만 가족 구성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영화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Die Ehe der Maria Braun>

작가	라이너 파스빈더 Rainer Werner Fassbinder(1945-1982)
장르	멜로 드라마
생성년도	1979
등장인물	<p>마리아: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노릇을 한다. 자신의 운명이 남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p> <p>헤르만: 마리아의 남편.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다. 아내의 정부인 오스발트와 마리아에 대한 비밀 계약을 맺는다.</p> <p>오스발트: 마리아를 사랑하는 실업가. 헤르만과의 계약을 통해 마리아를 얻는다.</p>

5.1. 내용 요약

전쟁 중에 행해진 마리아와 헤르만의 결혼식은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다. 간신히 결혼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헤르만은 전장으로 나간다. 마리아는 남편을 찾는 패찰을 목에 걸고 역으로 나간다. 역에 나가 남편을 기다리던 마리아는 생계를 벌기 위해 미군 바에서 일하게 된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빌이라는 흑인병사를 알게 된다.



친구 베티의 남편 윌리의 귀환으로 헤르만의 전사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는 빌을 찾아간다. 빌의 아이를 갖게 된 마리아 앞에 헤르만이 돌아온다. 마리아를 폭행하려는 헤르만을 말리려는 빌에게 마리아가 총을 쏜다. 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법정에서 마리아는 빌은 좋아했지만 남편은 사랑했다고 말하자 헤르만은 마리아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수감된다.

마리아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가 오스발트에게 접근하여

그의 연인이자 사업파트너가 된다. 마리아는 정기적으로 헤르만을 면회하며 오스발트와의 관계를 고백한다. 오스발트는 점점 마리아에게 빠져들고 마리아는 추진력 있는 여성 사업가로 변모해간다. 오스발트는 감옥으로 헤르만을 찾아가 마리아를 둘러싼 계약 조건을 제시한다.

마리아는 보석금으로 헤르만을 출옥시키려하지만 헤르만은 거부한다. 헤르만은 출옥 후 잠적한다. 헤르만의 잠적 이후 마리아는 히스테리 증세를 보인다. 독일과 헝가리 월드컵 결승전 하루 전날 오스발트가 갑자기 사망한다. 마리아 앞에 헤르만이 나타난다. 오스발트의 공증인이 마리아를 찾아 와 유언장을 읽어준다. 마리아는 자기를 두고 행해진 헤르만과 오스발트의 계약 사실을 알게 된다.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켜 놓은 가스가 폭발하여 마리아는 죽음을 맞는다. 폭발음과 동시에 축구경기가 끝나면서 “독일이 헝가리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독일이 세계의 주인입니다”라는 텔레비전 아나운서의 멘트가 흐른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결혼

- **서사구조:** 자신의 삶과 결혼생활이 사랑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는 여자가 자신의 삶이 남자들의 은밀한 계약으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절망한다.

원인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서약에 서명한다.
과정	계약: 남자들의 계약으로 인해 별거한다.
결과	절망/자살: 자신의 힘든 삶이 남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조장된 것임을 알고 절망한다. 우연을 가장하여 자살한다.

6. 작품 목록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1829), 『친화력 Wahlverwandtschaften』 (1809)

뷔히너 Georg Büchner: 『레온세와 레나 Leonce und Lena』 (1850)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 『철로지기 티ل Bahnwärter Thiel』 (1888)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유투 Die Reigen』 (1900)

브레히트 Bertolt Brecht: 『결혼식 Die Hochzeit』 (1926)

뒤렌마트 Friedrich Dürrenmatt: 『미시시피 씨의 결혼 Die Ehe des Herrn Mississippi』
(1952)

7. 연계 모티프

사랑, 섹스, 신분상승, 상속, 유혹, 정조, 자살, 별거, 이혼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신분상승 + 결혼 + 불륜 + 이혼
스토리	신분상승을 꿈꾸는 여자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나 불행한 결혼생활로 곧 자신의 헛된 욕망을 후회한다. 남편의 불륜을 조장한 후 이혼에 성공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